우리카드 크리스티안 파다르(오른쪽)가 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경기에서 상대 블로킹을 피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파다르는 이날 38득점, 공격성공률 56.66%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장충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3세트부터 눈빛이 달라진 파다르

파다르 38득점…우리카드, 3연패 탈출

부상 투혼에도 2세트까지 공격성공률 30%
김상우 감독 질책에 각성…3-2 역전승 주역

완벽한 몸은 아니었다. 재활과 휴식에도 통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냥 코트 밖에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연패에 빠진 팀을 위해, 또 올해 마지막 홈경기를 직접 찾은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온 힘을 끌어 모았다.

우리카드의 외국인선수 파다르(22)가 눈부신 활약으로 팀의 3연패 사슬을 끊었다. 우리카드는 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3라운드 한국전력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2 승리를 거뒀다. 0-2로 뒤진 가운데 내리 3연속으로 세트를 따내며 '리버스 스윕'을 완성시켰다. 대역전극의 한 가운데에는 주포 파다르가 있었다. 파다르는 홀로 38득점을 올리는 괴력을 선보이며 홈관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파다르는 첫 세트를 6득점으로 무난하게 출발했으나 범실도 4개를 기록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2세트에는 공격성공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주포가 흔들리자 우리카드 역시 전체적으로 불안함을 노출했다. 2세트까지 범실만 19개를 기록하며 허무하게 두 세트를 내줬다.

3세트에도 어설픈 경기력이 계속되자 '코트 위의 신사' 김상우 감독이 목청을 높였다. 그는 작전타임 도중 무섭게 선수들을 질책하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파다르 역시 김 감독의 의중을 곧바로 이해했다. 굳이 통역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파다르는 경기 후 "감독님의 질책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만큼 우리가 흔들렸고,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의 뜻을 매우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마음이 전해진 덕분이었을까. 파다르는 3세트부터 이전 세트와는 전혀 다른 존재감을 내뿜기 시작했다. 5세트까지 매 세트 공격성공률 55% 이상을 기록하는 빼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심지어 5세트에는 90%의 공격성공률을 기록하며 10득점을 책임졌다. 우리카드는 파다르의 후반 맹폭을 발판삼아 한국전력을 상대로 승점 2점을 챙겼다.

파다르는 "경기 전 몸 상태는 70~80% 정도였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경기를 하자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후반 집중력은 선수들이 나를 믿어줬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함께 뛴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승리소감을 전했다.

장충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삼성화재배 결승…한국 안방서 중국 집안 싸움

〈월드바둑마스터스〉

5~7일 탕웨이싱 vs 구쯔하오 3번기 격돌

중국기사끼리 격돌하는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결승3번기가 5~7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특별대국실에서 열린다.

중국기사간의 삼성화재배 결승대결은 올해로 3년째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6년 만에 중국보다 많은 통합예선 통과자를 내며 14명이 본선32강에 진출했지만 박정환 9단, 이세돌 9단 등 간판기사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안국현 8단만이 유일하게 4강 대진표에 생존했다. 하지만 최후의 희망 안국현마저 4강전에서 탕웨이싱에게 2-1로 꺾여 결국 또 다시 안방을 중국에 내주게 됐다.

결승3번기는 탕웨이싱 9단과 구쯔하오 5단이 대결을 벌인다. 탕웨이싱은 4년 만에 두 번째 삼성화재배 우승에 나서며, 구쯔하오는 이번이 첫 세계대회 결승무대다. 삼성화재배(2013)와 응씨배(2016)에서 우승한 탕웨이싱의 우승이 유력해 보이지만 구쯔하오 역시 중국바둑을 이끌 차세대 기수로 급부상 중인 신예강호. 2015년 리민배 세계신예바둑최강전에서 우승했다.

이번 대회 총 상금규모는 8억원,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결승전 현장에서는 바둑팬 초청 공개해설회, 프로기사 사인회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PyeongChang 2018 **평창동계올림픽 G-67**

'피겨 간판' 최다빈, 평창이 보인다

프리스케이팅서 실수 범해 2차 선발 4위
내년 3차 선발서 평창행 최종 확정 기대

한국 피겨의 희망이자 간판스타인 최다빈(17·수리고)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해 한걸음을 더 전진했다. 최다빈은 3일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회장배 랭킹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01.85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65.52점) 합산결과 168.37점으로 최종 4위에 올랐다.

최다빈은 이전에 열린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범해 최종 순위가 4위까지 밀렸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연결 점프를 3회전으로 처리하지 못했고,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시도 과정에서 넘어졌다. 연이은 점프 실수로 인해 프리스케이팅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번 선발전에서는 출전 나이 제한(만 16세 이상)으로 인해 평창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기대주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냈다. 1위는 차세대 피겨유망주 유영(13·과천중)이 차지했다.

최다빈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무려 130.10점을 획득해 쇼트프로그램(67.46점) 합계 197.56점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외에도 김예림(14·도장중), 임은수(14·한강중)가 종합 2위와 3위를 차지해 한국 피겨의 밝은 미래를 알렸다. 이들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한국은 올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다빈이 10위에 오르면서 여자 싱글 출전권 두 장을 확보한 상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차 대표선발전 점수를 합산해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최종 배분한다. 현재의 성적만 놓고 보면 출전권을 직접 확보해 온 최다빈이 가장 유력한 대표선발 후보다.

최다빈은 1차 선발전에서 총합 181.79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2차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합계 350.16점을 기록 중이다. 이는 333.35점을 기록하고 있는 2위 김하늘(15·평촌중)과 14.81점의 격차다. 최다빈이 내년 1월에 개최되는 3차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평창행을 최종 확정 지을 수 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파죽지세' 김태훈,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제패

결승전도 14-2 완승…남자 58kg급 우승
여자부 이다빈·김소희, 은메달 2개 추가

파죽지세. 2017년 김태훈(23·수원시청)을 설명하는 단어다. 3일(한국시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팔레 드 스포츠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WTF) '2017 월드태권도그랑프리파이널' 남자 58kg급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에 방점을 찍었다.

김태훈은 이날 1회전부터 결승까지 4경기를 치르며 무려 94점을 따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패배를 안긴 타윈 한프랍(태국)과 8강전에선 27점을 허용했지만, 무려 45점을 따내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 체급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는 파르잔 아슈르자데 팔라(이란)와 결승전에선 14-2의 완승을 거두며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급별 올림픽랭킹 상위 16명만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김태훈이 남자 58kg급 최강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김태훈은 전국체육대회 참가로 출전하지 못한 3차대회(영국 런던)를 제외한 올해 세 차례 그랑프리 대회를 모두 휩쓸었다. 러시아 모스크바 1차대회와 모로코 라바트 2차대회에 이어 파이널까지 제패했다. 6월 전북 무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선 54kg급 3연패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태훈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경기에 임하는 자신감이다. 김태훈은 리우올림픽에서 생애 첫 올림픽이라는 부담감에 발목 잡혔다. 당시 세계랭킹 46위였던 한프랍에게 16강전에서 패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불굴의 투지로 동메달을 차지하긴 했지만, 늘 가슴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다. 절치부심하며 준비한 결과가 올 시즌에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자부에서는 두 개의 은메달이 나왔다. 이다빈(21·한국체대)은 67kg 초과급 결승에서 비앙카 위크던(영국)에게 9-16으로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다빈은 준결승에서 리우올림픽 이 체급 금메달리스트 정수인(중국)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올해 그랑프리시리즈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한 위크던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6리우올림픽 49kg급 금메달리스트 김소희(23·한국가스공사)도 결승에서 파니파크 옹파타나키트(태국)에게 11-25로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농구 〈3일〉

•2017-2018 정관장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SK	18	13	5	0.722	0	2패
1	KCC	18	13	5	0.722	0	7승
3	DB	17	12	5	0.706	0.5	1패
4	전자랜드	18	11	7	0.611	2	1승
5	삼성	18	10	8	0.556	3	3승
6	모비스	18	9	9	0.500	4	1승
7	인삼공사	18	8	10	0.444	5	2패
8	LG	17	7	10	0.412	5.5	1승
9	오리온	18	4	14	0.222	9	1패
10	kt	18	2	16	0.111	11	5패

•경기결과

1일	현대모비스 (8승9패)	65	26 39	16-18 10-26 24-17 15-18	44 35	79	DB (12승4패)
	KCC (13승5패)	82	39 43	15-18 24-16 19-27 24-17	34 44	78	LG (6승10패)
2일	삼성 (9승8패)	82	39 43	17-23 22-19 18-19 25-13	42 32	74	인삼공사 (8승9패)
	오리온 (4승13패)	80	41 39	22-16 19-13 23-26 16-19	29 45	74	kt (2승16패)
	SK (13승5패)	73	38 35	19-28 19-23 24-18 11-13	51 31	82	전자랜드 (11승7패)
3일	인삼공사 (8승10패)	78	31 47	14-24 17-28 26-25 21-14	52 39	91	현대모비스 (9승9패)
	LG (7승10패)	87	43 44	18-18 25-16 22-14 22-17	34 31	65	오리온 (4승14패)
	삼성 (10승8패)	79	36 43	14-22 22-13 20-16 23-23	35 39	74	DB (12승5패)

여자프로농구 〈3일〉

•2017-2018 신한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10	8	2	0.800	0	4승
2	우리은행	11	8	3	0.727	0.5	3승
3	신한은행	11	6	5	0.545	2.5	1패
4	삼성생명	11	4	7	0.364	4.5	2패
5	KEB하나	10	3	7	0.300	5	3패
6	KDB생명	11	3	8	0.273	5.5	1승

•경기결과

1일	KB스타즈 (8승2패)	73	35 38	13-16 22-17 18-8 20-23	33 31	64	KEB하나 (3승7패)
2일	KDB생명 (3승8패)	63	31 32	17-11 14-11 12-15 20-9	22 24	46	신한은행 (6승5패)
19일	삼성생명 (4승7패)	61	28 33	13-22 15-19 15-23 18-15	41 38	79	우리은행 (8승3패)

프로배구 〈3일〉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도로공사	11	7	4	23	989	922	3승
2	현대건설	10	7	3	20	866	788	1패
3	IBK기업은행	11	6	5	18	948	951	1승
4	인삼공사	11	5	6	16	929	966	2패
5	GS칼텍스	10	5	5	11	889	898	1승
6	흥국생명	11	2	9	8	832	928	4패

•경기결과

2일	IBK기업은행 (6승5패)	3	25-18 25-19 25-14	0	흥국생명 (2승9패)
3일	도로공사 (7승4패)	3	25-11 25-18 25-17	0	인삼공사 (5승6패)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삼성화재	13	11	2	30	1218	1104	11승
2	현대캐피탈	12	7	5	22	1032	997	1승
3	대한항공	13	6	7	19	1219	1202	1패
4	한국전력	13	5	8	18	1073	1121	1패
5	KB손해보험	12	6	6	17	1137	1130	3패
6	우리카드	13	5	8	14	1210	1279	1승
7	OK저축은행	12	4	8	12	1092	1148	2패

•경기결과

1일	현대캐피탈 (7승5패)	3	25-22 25-21 25-16	0	KB손해보험 (6승6패)
2일	대한항공 (6승7패)	2	15-25 25-23 19-25 25-18 20-22	3	삼성화재 (11승2패)
3일	우리카드 (5승8패)	3	21-25 23-25 25-23 25-23 20-18	2	한국전력 (5승8패)

아마추어 경기결과

토요일 경기결과 〈2일〉

배드민턴 ●2017 광주 빅터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광주 염주체육관) •남자 단식 본선 준결승전=김민기(한국) 2-0 이동근(한국), 전혁진(한국) 2-0 페트프라답(태국) •여자 단식 본선 준결승전=이장미(한국) 2-0 진다폴(태국) •남자 복식 본선 준결승전=정재욱, 김기정(한국) 2-1 이용대, 유연성(한국), 김원호, 서승재(한국) 2-1 리아오민춘, 수칭힝(대만) •여자 복식 본선 준결승전=김소영, 공희용(한국) 2-1 초우메이쿠안, 리멍옌(말레이시아), 이소희, 신승찬(한국) 2-0 이은아, 윤민아(한국) •혼합 복식 본선 준결승전=최솔규, 채유정(한국) 2-0 김원호, 신승찬(한국), 서승재, 김하나(한국) 2-0 파이잘, 위드자자(인도네시아)

아이스하키 ●2017-2018 아시아리그
•이글스(12승11패) 2-1 프리블레이즈(12승11패), 아이스벅스(11승12패) 5-3 크레인스(10승13패), 사할린(18승6패) 2-1 대명(9승15패)〈승부타〉 •리그 현재 순위=① 사할린(51점), ② 한라(42점), ③ 프리블레이즈(37점), ⑦ 대명(28점), ⑧ 하이원(28점)

빙상 ●2017-2018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캐나다 캘거리) •3000m 여자부 디비전A=① 미호(일본), ② 데용(네덜란드), ③ 뷔스트(네덜란드), ⑭ 김보름(한국)

일요일 경기결과 〈3일〉

축구 ●2017 FA컵(울산문수)
•결승전 2차전=울산현대(1승1무, 우승) 0-0 부산아이파크(1무1패)

배드민턴 ●2017 광주 빅터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광주 염주체육관) •남자 단식 본선 결승전=전혁진(한국) 2-1 김민기(한국) •여자 단식 본선 결승전=판지에(중국) 2-1 이장미(한국) •남자 복식 본선 결승전=김원호, 서승재(한국) 2-0 정재욱, 김기정(한국) •여자 복식 본선 결승전=이소희, 신승찬(한국) 2-0 김소영, 공희용(한국) •혼합 복식 본선 결승전=서승재, 김하나(한국) 2-1 최솔규, 채유정(한국)

핸드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
•D조 예선전 1차전=한국(1승) 24-22 네덜란드(1패)

빙상 ●2017 전국 남여 피겨스케이팅 랭킹 대회(목동실내빙상장) •프리스케이팅 남자 싱글 1그룹=① 이준형(단국대), ② 차준환(휘문고), ③ 이시형(판곡고) •프리스케이팅 여자 싱글 1그룹=① 유영(과천중), ② 김예림(도장중), ③ 임은수(한강중)

아마추어 경기예고 〈4일〉

농구 ●2017-2018 KBL D리그(고양보조)
•SK-KCC(오후1시30분), 전자랜드-상무(오후3시30분)

핸드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

탁구 ●2017 ITTF 세계 주니어 탁구선수권대회(이탈리아 리바델가르다)

아이스하키 ●2017-2018 아시아리그(고양, 오후7시)
•하이원-사할린

스쿼시 ●2018 국가대표 선발전(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오후1시)

역도 ●2017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미국 애너하임)

경기 예고

여자프로농구 〈4일〉

•2017-2018 신한은행 WKBL

KB스타즈 〈청주체육관〉 KEB하나

오후7시, KBSN스포츠